

노지문화 보존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활동하는
노지문화 생태예술가

편 지 영

편지영

식물을 키우고 가꾸는 정원사의 시선을 통해 느끼게 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아 현재 주어진 방법을 통해 지금 제주의 자연공간을 가꾸고 기록하고 채집하며 살고 있다.

활 동 명 : LIVING THINGS - 살아있는 것들

대 상 : 신레천 생태탐방로 1코스 일대

결 과 물 : 영상(사진+사운드), 고사리 표본 포스터

기 록 : <https://youtu.be/r3IKUBSmKKI>

1. 그간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식물을 키우고 가꾸는 정원사가 본 직업으로, 식물을 관찰하고 공부하기 위해 기록하듯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15년도에 제주에 이주해 정원 일을 하며 틈틈이 자연 답사를 다녔는데, 매년 찾아가던 장소가 전과 다르게 빠르게 변해감을 느꼈고 식물의 성장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닌 인위적인 간섭으로 영향을 받는 자연을 보며 사라져가는 지금의 풍경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 그간 기록한 제주의 자연과 정원, 식물을 담은 계절 사진집을 만들었습니다.

2.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식물을 키우고 가꾸는 일을 하며 자연을 함께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사진집을 만들던 당시 서울에 있던 동생이 제주에서 녹음한 새소리, 풀벌레 소리와 함께 계절곡을 만들어 줬는데, 이를 계기로 자연소리 채집도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고사리가 지닌 원시적인 아름다움에 반해 표본 제작도 함께 시작했고, 그 첫 번째로 제주 신레천의 저지대 상록활엽수림

일부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첫 사진집은 개인적인 성장기록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여러 사람이 자연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아낄 수 있도록 사진과 소리녹음으로 만든 영상 제작, 식물 표본 포스터 제작 등 새로운 자연기록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 작가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의 노지문화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식물을 다루기 때문에 제 분야에서 얘기하자면, 서귀포가 가진 자연환경과 더불어 관련된 식물 모임과 단체, 교육 활동들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 스터디, 오름 답사, 꽃자왈 보호 등 작은 모임과 단체 활동부터 숲해설가와 자연환경해설사분들처럼 자연에 관한 공부나 도움을 받을 기회도 많아 처음 제주의 자연을 접했을 때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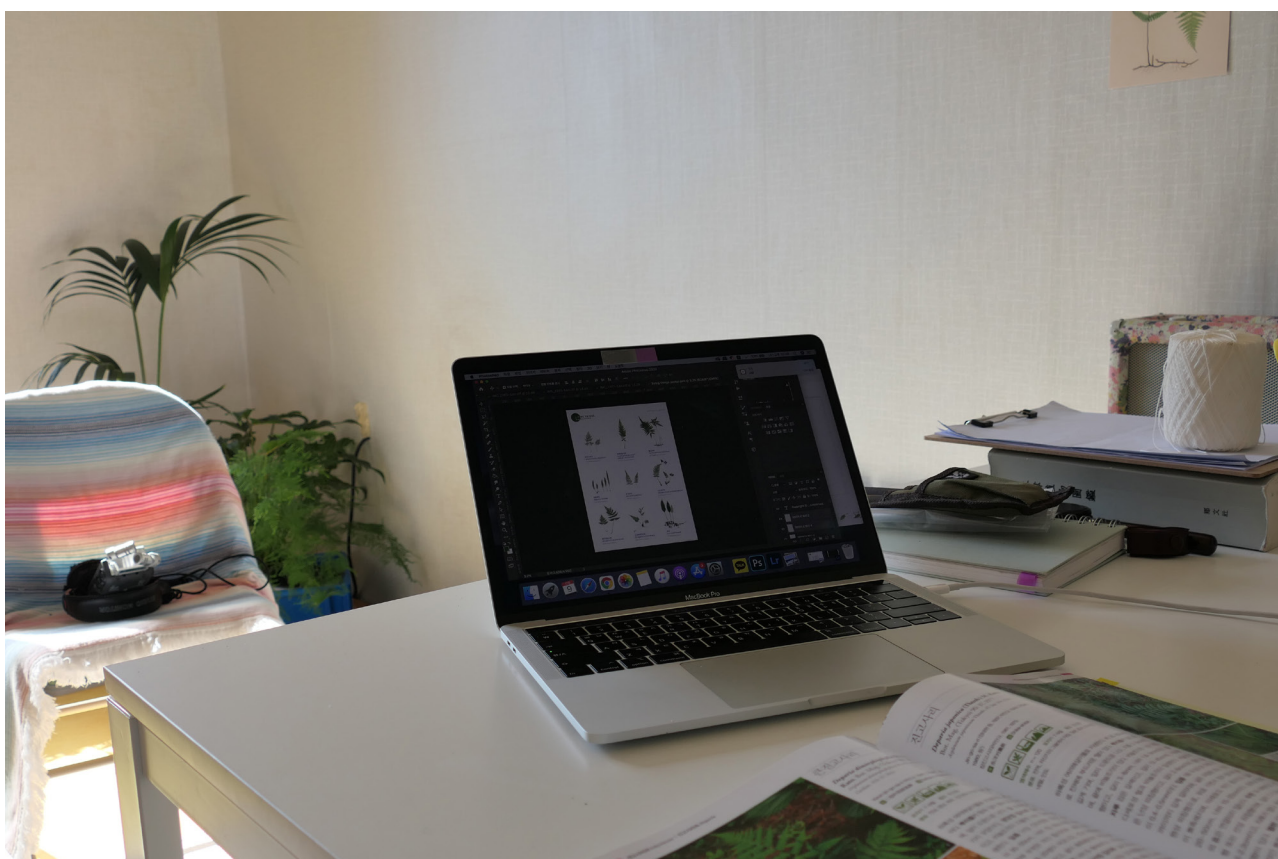
4. 작가님이 바라는 노지문화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삶의 현장이 자연 안에 있다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 위안과 더불어 끊임없는 생동감,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두고 들여다볼수록 자연을 아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끼고 지켜나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며 그 가치를 알리고 지키는 작은 활동들을 오래도록 꾸준히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존하는 자연 안에 우리도 함께 속해있음을 생각하며 모두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건강한 삶을 추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다른 문화와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연결 장들이 많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현장

현장 답사 및 인터뷰 (사진 출처: 스튜디오 sssstudio)

신례리에 위치한 작가의 공간





신례천 생태탐방로 1코스 일대



현장

기록 (사진 출처: 편지영)



산죽제비고사리 표본

산족제비고사리





상록활엽수 표본



버들참빗 표본

